

## 111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강좌

###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시리즈(5)

#### 주제: 전근대 중국 서책의 동아시아 전파: 조선과 베트남

#### 사신들의 서책 구입에 대하여

중국문화대학교 111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특강 제 5 회 강연에서는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허이령(許怡齡) 교수를 초청하여 「전근대 중국 서책의 동아시아 전파: 조선과 베트남 사신들의 서책 구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동아시아학의 연구 분야에서 학계는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에 집중해 동남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 강연을 하는 허 교수는 한국과 베트남을 연구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뛰어난 학자이다. 오늘 강연에서 허 교수는 먼저 조선과 베트남 사신들의 서책 구입의 배경에 대해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조선과 베트남 사신들의 서책 구입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베트남 사신들은 어디에서나 서책을 구입할 수 있었고, 조선 사신들은 수도에서만 서책을 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 사신들의 서책 구입의 근본적 차이를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 조선과 베트남 사신의 서책 구입 경로

조선, 베트남, 일본은 모두 한자 문화권 국가이다. 설령 이들 나라에 한자가 일찍 도입되었다고 해서 서책이 동시에 전파된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에서 서책의 보급은 한자를 배경으로 하는 것 외에 경제적 능력 등과 같은 실질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서책 보급 방법이 있는데, 허 교수가 소개한 것은 ‘사신(외교관)’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보급 시기는 대략 명청시대이다.

조선과 베트남 양국은 사신을 통해 중국의 서책을 얻었는데, 주요 방법은 세 가지로 (1) 중국에서 책을 하사함(賜書): 사서오경(四書五經), 성리대전(性理大全), 위선음즐(爲善陰鷲) 등이 있다. (2) 조공(朝貢) 즈음에 서책을 구입: ① 조선 1 년 3 공(총 499 회); 조공 1 회 왕복 6 개월 정도 소요되며, 공도(貢道) 노선은 동쪽에서 서쪽이다. ② 베트남은 6년 2공(총 77 회); 조공(朝貢) 1 회 왕복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공도(貢道) 노선은 남쪽에서 북쪽이다. (3) 국제 무역 경로: 조선은 국제 무역이 없었고, 베트남은 주도적으로 서책을 주문하는 것 외에도 청 선박이 광저우(廣州)에서 국제 무역을 수행하였다.

## 조선과 베트남 사신들의 서책 구입 특징

우선 조선과 베트남 양국은 서책을 구입하는 장소가 다르다. 명나라 구예(邱浚)의 『대학연의(大學衍義)』에 따르면 조선 사신단은 조공(朝貢) 노선에서 군과 현(郡縣/지방 행정 구획의 이름)이 많지 않아 수도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베트남 사신단들의 노선은 만리(萬里)에 달해서 길을 따라 어디서든지 서책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나라 정부가 사절단에게 마음대로 서책을 살 수 없도록 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천문(天文), 역법(曆法), 병법(兵法)에 관한 서책을 사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 청나라 원매(袁枚)의 『수원시화·보유(隨園詩話·補遺)』에 따르면 고려, 류큐(琉球), 안남(安南) 등의 사람들이 연경(燕京)에서 새로 나온 시, 문학 소설을 모두 구입하였다.

그 당시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천문(天文), 역법(曆法), 병법(兵法) 등의 서책 등은 자유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시문(詩文), 소설은 제한이 없었다.

둘째, 조선과 베트남은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조선의 이의현의 『경자연행잡지(庚子燕行雜識)』에 의하면 사신들이 서점에서 자유롭게 책을 구매할 수 없었으며, 일부 역관이 중개인과 결탁하여 책값을 높게 받으려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베트남의 판타이잔(潘淸簡/Phan Thanh Giản)의 『대남실록(大南實錄正編第二紀)』에 따르면 은 두 냥으로 서책을 구입하는 것 외에 베트남의 특산물인 「계피, 두구(荳蔻), 연와(燕窩, 제비집)」 등을 「인삼, 약재, 서책」 등의 청나라 귀중품과 교환한 기록이 있다.

## 조선과 베트남의 서책 구입의 근본적 차이

책은 지식을 대표한다. 허 교수는 서책 전파의 의미는 지식 공유와 외국 문화의 사상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허 교수는 마지막으로 조선과 베트남 양국 사신의 서책 구입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 (1) 책을 구입하는 비율이 다르다. 조선에서는 서책을 구입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신들을 통해서였다. 반면, 베트남에서는 사신들을 통해서 서책을 구입하기도 하였지만 청상(淸商) 무역도 있었다.
- (2) 책을 구입하는 공간이 다르다. 조선은 북경 서적 시장(유리창, 琉璃廠)에서만 서책을 구입하였으며, 서책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다. 반면, 베트남은 북경 뿐만 아니라 북경 이남(以南)의 조공(朝貢) 노선에서도 서책을 구입할 수 있어서 서책 구입이 비교적 개방적이다.
- (3) 중개의 인물 유무(有無)가 다르다. 서책을 구입할 때 조선 사신은

자유롭게 서점에서 서책을 구입할 수 없었다. 서책을 구입할 때 역관과 서반(특수계급의 중국통)이 책값을 높여, 역관과 사신 간에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베트남의 사신은 중국 화교가 많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책을 구입할 수 있었다.

(網頁連結：<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撰稿：涂玉璫 日文系・副教授)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교수